

새로나온 책



▲능엄경(거부스님 역주, 수덕사 승가대학)= 수덕사 승가대학에서 <치문경론>, <서장>, <도서·절요·선요>에 이어 강원 교재용으로 편찬한 책. 거부스님이 학인들을 대상으로 <능엄경>을 강의한 내용으로 원문 직역에 충실하고 있다. 값 2만5천원.



▲길아산과 덕유산(한국 문화유산답사회 역음, 돌베개)= 답사여행의 길잡이 열세번째 권으로 가야산과 덕유산 주변 지역의 답사여행 안내서. 가야산 골짜기 잊혀진 왕궁 가사의 전설이 맺힌 고령, 합천, 거창을 비롯 전주, 완주, 진안 등 5개의 답사여행 코스가 소개돼 있다. 값 9천원.



▲영남 불지 속의 지혜(앤서니 드 멜로 지음, 진우기 옮김, 양문)= 글쓰기가 세계 곳곳을 다니며 찾아낸 민담, 잡언, 격언들을 본성, 교육, 권위, 인간관계 등 우리들 누구나 관심 있어 하는 일곱가지 주제로 나누어 정리한 책이다. 값 6천원.



▲21세기 희망은 농에 있다(정경식·안철환 지음, 두레)= 공생과 순환의 농업을 100여 종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한 농사꾼의 이야기. 20년 넘게 무농약 유기농사를 지어 온 농부 정경식씨는, 21세기 인류의 희망은 농촌에 있다고 선언한다. 값 8천원.



▲술아술아 푸르른 술아(최선용 지음, 두리)= 한 장자의 욕망 수가,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는 "현대 민족사의 비극인 분단 상황을 해결해 보고자 젊은 나이에 북쪽으로 갔다는 것은, 오늘을 사는 청년들에게 교훈을 던져 준다"고 평했다. 값 1만원.



▲모든게 인연일세(이현덕 지음, 북앤드)= 98년 입적한 해인사 명진스님의 수행이야기. 재가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명진스님의 수행과 증보교화에 진력했던 수행자의 철저한 삶이 한 권의 책으로 되살아났다. 값 6천원.



▲한방으로 풀었던 성인병과 노인병 그리고 양생법(김양식 지음, 하남)= 성인병과 노인병에 대한 임상 소견과 처방법, 그리고 예방법을 다루고 있다. 값 1만원.

편역과 주런, 그리고 깨침의 세계

대한불교진흥원 '한국사찰의 편역과 주런'

우리나라 주요 사찰 200여 곳의 편역과 주런을 총망라한 자료집 <한국사찰의 편역과 주런>(대한불교진흥원)이 나왔다. 그동안 사찰의 편역과 주런은 전각의 신앙적 특성과 그 바탕을 이루는 교리의 핵심을 담고 있었음에도 일반 불자들에게는 '그림의 떡' 같은 것이었다. 대부분 일반인으로서 읽기조차 힘든 한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자료집의 발간으로 인해 그와같은 답답함은 거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편역은 불보살을 모신 전각의 성격을 나타내는 현판이다. 그리고 주런은 전각에 봉안된 불보살의 중심사상을 함축한 시문으로 구성돼 있다. 말하자면 편역과 주런은 사물의 길과 속함을 역할하고 있는 셈이다.

이 책은 편역과 주런의 신앙적, 서예적 의미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편역과 주런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 필요성은 이 책에 수록된 홍윤식 교수의 '가람의 구조와 편역의 의미'와 서예가 여초 김응현씨의 '사찰 편역과 주런의 서예적 고찰'이란 논문에서 잘 나타나 있다.

편역과 주런의 역사는 오래지 않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 진흥왕 54년 '대왕홍륜사'라 편역했다는 기록 이후부터 보편화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편역으로는 공주 마곡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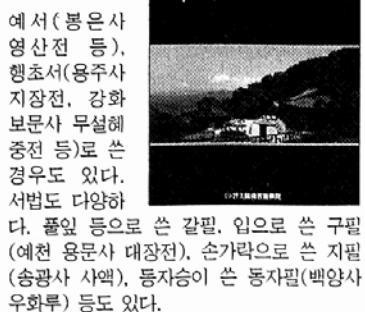
읽기조차 힘든 절집 글씨

뜻 풀이-쓴 까닭 '해설'

'대웅보전'과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 안에 걸려 있는 '반덕산 백련사'다. 고려의 편역 중 가장 오래된 것은 공민왕이 쓴 것으로 보이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편역이다. 하지만 변죽의 장엄과 서미(書味)로 보아 가장 신빙할 수 있는 절대 연대를 가진 편역은 부석사 무량수전으로 보고 있다.

주런의 역사는 편역보다 늦은 조선초기로 본다. <삼국유사>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의 사서에도 주런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에 대해 학자들은 주런이 원형 또는 배후립 기둥에 걸기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합천 해인사의 수다라장 입구의 협문에 쓴 것과 남양주시 흥국사 만월보전 주런 등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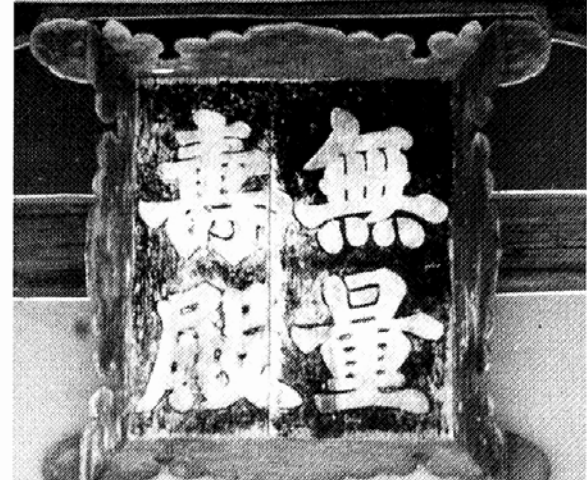
이 책에는 특이한 편역과 주런도 소개되어 눈길을 끈다. 가장 큰 편역은 속종의 어필로 전하는 칠곡 송림사 대웅전 편역(366X160cm)이며, 편역과 주런을 가장 많이 쓴 선사는 만공스님. 또 편역의 서체는 대부분 해서체로 쓰는 것이 관례이나, 전서(실상사 약사전, 나주 다보사 대웅전 등)나



에서(봉은사 영산전 등), 행초서(영주사 지장전, 강화 보문사 무량수전 등)로 쓴 경우도 있다. 서법도 다양하다. 풀잎 등으로 쓴 갈필, 입으로 쓴 구필(예천 용문사 대장전), 손가락으로 쓴 지필(송광사 사액), 등자승이 쓴 등자필(백암사 우회루) 등도 있다.

3년 여의 출판 작업 끝에 출간된 이 책에 실린 편역과 주런은 전통사찰을 중심으로 모두 2000여장의 편역과 300여장의 주런 사진이 수록돼 있다. 불교학, 불교미술, 서예사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고증으로 출간된 이 책 상·하권에는 사찰의 역사와 성보문화 소개, 편역과 주런의 필자와 서평, 원문해설 등을, 부록에는 본문에 수록하지 못한 주런의 원문과 해설, 주런의 출전해제, 당우해설, 편역과 주런의 필자 인명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이 돋보이는 이유는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로 번역하고 출판을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여초 김응현, 초창 권창륜, 구당 여운구씨 등 전문 서예학자들이 서예사적 관점에서 글씨평을 달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불교미술 연구는 불상, 탑과, 탱화, 건축 등에만 집중됐고, 편역과 주런을 성보문화재로 다룬 일은 거의 없었다. 그 한 예가 추사 김정희가 쓴 서울 봉은사의 '관전' 편역만이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는 사실이다. 편역과 주런은 불교학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격의 고증 단서 등 사료적 가치가 높다는 점에서 사찰 정음의 성보문화재로 그 가치를 다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값 전3권 30만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문화유산 연구 40년 결산

홍윤식 교수 '문화유산의 전통과 향기'

홍윤식 교수(동국대 역사교육학과)가 정년퇴임을 앞두고 40여 년간의 문화유산 연구에서 느낀 감회와 아쉬움 그리고 바람을 총정리한 책을 발간했다. 홍윤식 교수의 '문화유산관'이라 할 수 있는 '문화유산의 전통과 향기'(민족사)는 글쓴이가 문화유산의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다.

'불교문화유산의 전통', '불교 문화유산의 향기', '우리문화유산과 종교불교유적' 등 모두 3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불교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쉽게 잊혀지고, 시대 속에 묻혀버리기 쉬운 우리 문화유산을 다시 인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다. 특히 우리 문화유산의 명맥을 이루는 불교문화에 대한 홍교수의 애정은 각별하다. 어느 장에서나 불교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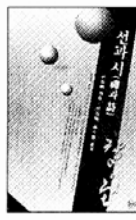
와 고민이 결실을 만날 수 있다. 불상과 사찰의 전각에서부터 불교조각, 불교미술, 불교음악, 단청 등에 대한 홍교수의 폭넓고 진중한 안목이 바로 그것. 자칫 고루하고 답답하게만 느껴질 수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새로이 문화를 바라보고 이해한다는 시각을 갖게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책은 문화유산을 바르게 이해하는 지침서가 될 만하다.

홍윤식교수는 책머리에서 "한반도 구석구석에 살아 숨쉬는 불교문화유산은 옛 선인들과 후손을 연결해 주는 영원한 정신적인 귀의처이다"며 "이 책은 문화유산과 맺어온 솔직한 심정을 적은 것이지만 그 참맛이 올바르게 이해되어 우리 문화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값 8천5백원.

詩로 다가가는 禪

두송백의 '선과 시' 번역 출간

"각 시편마다 쓸모 없는 문장 없고, 오직 민생의 아픔만을 노래했다." 시인 백기아가 세운 시가창작의 지표인데, 이 같은 경지에 이른 시인은 흔치 않다. 하지만 선승의 개성은 하나같이 쓸모 없는 문장이라곤 찾아보기 힘들다. 역사 속에 빛을 감춘 채 묻혀 있던 선승문학의 계도에 올려놓은 대만 증흥대 두송백의 역작 <선(禪)과 시(詩)>가 도서출판 민족사에서 번역 출간됐다. 이 책은 달마스님에서부터 당송대까지의 선승들의 계승들을 토대로 선과 시의 융합관계를 시학적 관점에서 밝히고 있다. 즉 문학을 통한 선으로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글쓴이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정원신정석교목록1·해심밀경소2

한글대장경 2권 출간

동국대학교 역경원에서 <정원신정석교목록 1>과 <해심밀경소 2> 등 한글대장경이 2권이 나란히 출간됐다. <정원신정석교목록 1>은 모두 30권으로 당나라 정원 16년(800)에 원조스님이 편찬한 경전목록이다. 이 책은 크게 총록과 별록으로 구성돼 있다. 총록은 특송은지록과 총집군경목록, 별록은 분송장차수록과 명현성집전록으로 나누어져 있다. 특송은지록은 황제의 승인하에 새로 대장경에 편입된 경전목록으로써 <개원록>에 실리지 못한 신역 <화엄경(40권)>과 현종 이후의 3대조에 걸쳐 번역된 경·율·론과 <대별명경> 등 232권의 장정이 수록되어 있다. <해심밀경소 2>는 6권 분별유가품에서부터 10권 여래성소작사품까지 다루고 있다. 값 각권 1만5천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책방 여시인 집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만행-하버드에서 화제까지	현 각	열림원
2	금강경 강해	김용욱	통나무
3	오두막 편지	법 정	이 레
4	김용욱선생 그전 아니올시다	법 상	시공사
5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 타	효림
6	노자와 외세기(하)	김용욱	통나무
7	적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 타	불교시대사
8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9	지장신앙 지장기도법	김현준	효림
10	종경	원 성	이 레

도서 안내: (02)737-0695

선방일기

선방에서의 수행 풍토는 물론이고, 당시의 시대상까지 접할 수 있는 값진 글!

이 '선방일기'는 1973년 봄 '선동아'의 논픽션 공모에 당선된 작품으로 '지허'라는 서울대 출신 스님의 선방에서의 일과가 솔직담백하게 담겨 있다. 일반인들로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선방에서의 수행 풍토는 물론이고, 당시의 시대상까지 접할 수 있는 값진 글들이다. 수행자로서의 고뇌와 의지가 곳곳에 스며 있는 이 글은, 새로운 세기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수행의 거울이 되리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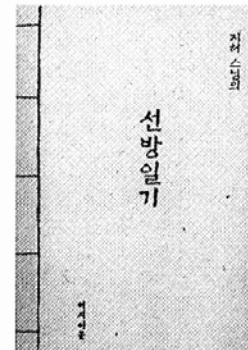
"결만 보고 입살했다가 실상을 알고보니 세상에서 느낀 것보다 더 큰 절망이 절간에 도사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그대로 머무느냐, 허산하느냐이다." 선방의 숨은 이면이 때론 잔잔하게 또 더러는 치열하게 그려진다. 부 디자인도 내용에 어울리게 단아하다. - 문화일보(2000. 2. 23)

'금단의 영역'으로 알려진 선방에서의 일상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은, 70년대 초의 선방 풍속도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아 지고 있는 선방의 전통을 보여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강원일보(2000. 2. 23)

서울대 출신의 필자가 73년 봄 월간지 '선동아'의 논픽션 부문에 응모해 당선된 글을 예쁜 장정의 포켓북으로 꾸몄다. 일반인들로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선방에서의 수행 풍토는 물론 세상을 보는 지혜가 각 장마다 번뜩인다. - 동아일보(2000. 2. 26)

지허 스님에 따르면 절간에는 피안도 일반도 없다. 정신과 육체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고통이 있을 뿐이다. 선자들은 깨달음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사이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최후에 매달린다. - 한국경제(2000. 2. 26)

스님들의 수행 공간인 선방은 일반인에게 신비의 장소이다. 그 때문에 산문을 달아 걸고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해가는 스님들의 모습이 때로 침소봉대해 전해지곤 한다. 최근 선보인 이 책은 선승들의 선방생활을 진솔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경향신문(2000. 2. 29)



지허 스님 지음 B6 136쪽 값 5000원

여시아문에서 펴내는 주머니 속 대장경

- 101 보르헤스의 불교 강의 (교리·입문)

BO의 창조자 '환상 문학의 창시자' '사상의 디자이너'라 불리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그에게서 전해 듣는 붓다의 가르침, 그 핵심을 모았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알리시아 후라도 공저. 김홍근 편역/ B6 변형 242쪽/ 값 5500원
- 102 법수로 배우는 불교 (교리·입문)

불교의 범주는 일반적으로 쓰는 세속의 숫자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숫자들... 그 깨침의 묘리를 본다. 이계일 지음/ B6 변형 196쪽/ 값 4500원
- 201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생활불교)

궁극적인 깨달음을 노래하지만 그것보다 불교에 대한 마음가짐과 기초 수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티베트인들의 정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초령 스님 편역/ B6 변형 178쪽/ 값 4000원
- 301 참선요지(參禪要旨) (선법)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참선의 요지만을 담았다.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晟) 스님 옮김/ B6 변형 278쪽/ 값 5500원
- 302 방편개시(方便開示) (선법)

깨달음 그 자체보다는 궁극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晟) 스님 옮김/ B6 변형 330쪽/ 값 6000원
- 303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선법)

한글 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 현형조 지음/ B6 변형 334쪽/ 값 6000원
- 401 어금의 팔곡 절 (문학)

조선 시대 선사 44인의 선시 모음집. 이종찬 지음/ B6 변형 282쪽/ 값 5000원
- 501 불성이란 무엇인가 (문학·학술)

모든 중생엔 불성(佛性)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성불할 수 있을까? 전치수 지음/ B6 변형 196쪽/ 값 4500원
- 502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쳐주세요 (문학·학술)

황폐한 우리의 교육 현장에 던지는 붓다의 음성 '전상현하유아독론' 김중서 지음/ B6 변형 182쪽/ 값 4500원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